

## 3·1운동 이후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성격\*

김형목\*\*

### | 목 차 |

- I. 머리말
- II. 문화계몽운동과 대중운동 확산
- III. 대중운동 결집체로서 신간회 부산지회
- IV. 학생운동 총화로서 1940년 부산항일학생의거
- V. 맺음말

### | 국문초록 |

3·1운동은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분수령’이었다. 소수 친일세력을 제외한 한민족은 조국광복을 향한 대열에 동참했다. 적극적인 참여에도 만세운동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었다. 변화에 부응하려는 민족해방운동은 모색되고 있었다.

사회주의 유입으로 민중운동론에 입각한 대중투쟁은 강조되는 분위기였다. 부산지역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다양한 항일운동론은 모색되었다. 학생운동은 3·1운동 이후 해방 직전까지 지속되는 분위기였다. 조선인 본위교육 시행, 민족적인 차별을 일삼는 일본인 교사 배척 등은 주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경험은 1935년을 기점으로 반제·반전운동을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민

\* 부산시 주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2018. 10.30.) 발표원고를 수정한 것임

\*\*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 [hyungmok59@hanmail.net](mailto:hyungmok59@hanmail.net)

죽말살정책에 맞서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활동도 병행되었다. 1940년 부산항일학생운동과 소규모 비밀결사는 암울한 식민지시기를 밝히는 ‘희망봉’이었다.

1920년대 초반 부산부두노동자 총파업은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인세직공조합 파업 등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운동가들은 외부 세계와 교류나 소통을 통하여 탄압에 맞섰다. 소비조합운동이나 야학운동 등은 노동자들의 현실인식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메이데이 기념식은 노동자들의 주체의식을 일깨우는 밑거름이었다.

신간회 부산지회는 노동단체와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대중조직 기반은 노동운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문화계몽운동과 학생운동과도 일정한 연계를 지녔다. 특히 노동운동 진전은 소부르조아 중심에서 벗어나 대중성을 확보하는 근간이었다. 이는 대중투쟁이나 부문별 민족해방운동과 일정한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신간회 ‘해소론’을 최초로 제기한 부산지회는 이러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주제어 : 3·1운동, 기미육영회, 교육열, 조선인 본위교육, 부산노우회, 신간회 부산지회, 1940년 부산항일학생운동, 비밀결사.

## I. 머리말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 소리는 국내외로 급속하게 파급되었다. 만세시위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3월 2-3일 경에는 부산지역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이어 경성학생단은 부산 중등학생들에게 만세시위를 촉구하였다. 일신여학교 교사인 주경애는 동료 교사와 고등과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부산상업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취했다. 3월 12일 일신여학교 만세시위는 부산지역에서 신희탄이었다. 여학생들의 절규에 가까운 함성은 부산은 물론 인근 경남지역으로

파급되었다.<sup>1)</sup>

동래고보와 범어사 명정학교 지방학림 학생 등은 동래지역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장날을 이용한 만세시위는 주민들 동참을 견인하는 촉매제였다. 더욱이 학생들에 의한 만세시위는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기폭제나 다름없었다. 구포지역도 학생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어 상인이나 인근 농민들도 합세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sup>2)</sup> 폭발적인 만세시위에도 조국광복 실현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참여를 통한 소중한 경험은 식민지배의 모순을 새롭게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한편 활동가들은 민중층의 적극적인 참여에 크게 고무되었다. 당황한 일제는 기만성을 내포하는 문화통치로 식민지배정책을 선회하는 등 회유책을 강구했다. 이러한 변화로 합법적인 활동공간은 외형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 상호 교류를 통한 소통은 민중의 현실인식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배경이었다. 3.1운동 이후 다양한 민족해방운동론 등장은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청년운동을 비롯한 노동운동·여성운동·교육운동·학생운동·형평운동·의열투쟁 등 부문별 민족해방운동 분화와 진전은 당시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改造論이 풍미하는 가운데 교육열은 대한제국기 이래 고조되는 분위기였다.<sup>3)</sup>

부산은 지리적인 위치로 개항 이래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수탈의 ‘최

- 
- 1) 박철규, 『부산지방』, 『국내 3.1운동 II-남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53~254쪽. 기존 대다수 연구는 일신여학교 만세운동을 부산과 경남지역 최초로 서술하였다. 최초는 경남 함안이었다. 이는 부산지역 만세운동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와 당시 지역 만세운동 연구가 크게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다(박철규·김상환 이규석, 『함안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 『지역과 역사』 16, 2005).
  - 2) 이용락 편저, 『3.1운동실록』, 도서출판 금정, 1994, 600~618쪽.
  - 3) 김형목, 『야학운동』, 『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5』,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8쪽; 『주경야독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다』, 『배움의 목마름을 풀어준 야학운동』, 서해문집, 2018.

전선'이었다. 이곳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민족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들은 '문명인'으로 행세하면서 한국인을 '미개인이거나 야만인'으로 취급하기가 다반사였다. 마치 지배자처럼 주민들에 대한 멸시과 탄압은 어느 지역보다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수탈에 비례하여 항일의식은 점차 고조되는 '엄연한' 현실이었다. 혹독한 일제강점기에 노동운동이나 의열투쟁 등 진전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부두노동자들 항쟁, 인쇄공 직공의 총파업, 조선방직 노동쟁의, 적색노동조합 활동 등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4) 곧 부산지역 활동가들은 노동운동을 진전시키는 등 사회적인 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학생운동과 청년운동도 해방 직전까지 계승되면서 대중운동을 견인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1940년 부산항일학생운동은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성장한 학생층 저력을 보여주었다. 식민지 노예교육에 대한 저항은 광주학생운동 이래 학생들을 크게 각성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5) 파쇼전시체제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은 항일정신은 자유와 평화를 향한 밑거름 중 하나였다. 일제강점기 학생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중은 만세운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회적인 존재성을 자각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중요한 과제는 실력양성을 위한 교육문제가 관건이었다. 이는 일제의 가혹한 수탈 강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었다. 1920-30년대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야학·강습소 등은 당시 상황을 대변한다. 여자야학이 주요한 여성

4) 김정일, 『일제하 노동운동사-창비신서 111』, 창작과비평사, 1992 관련항목 참조.

5) 강대민, 「부산항일학생의거(소위 노다이, 乃台事件)」, 『부산지역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188~197쪽, 「부산지역 항일운동의 전통」, 『근대 부산의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76쪽, 「1940년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인식에 대한 고찰」, 『인문학논총』 40, 2016. 김호일, 「동래중학·부산제2상업학교 학생들의 항일운동」, 『한국근대학생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05, 359~368쪽.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은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자이를 일깨우는 요인이었다. 청년단체·여성단체·계몽단체 등은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섰다.6)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계몽활동은 시대 변화에 부응함으로써 항일운동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나 마찬가지였다. 여성운동 진전은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였다.

이 글은 기존 연구 성과(참고문헌 참조)를 토대로 3·1운동 이후 부산 지역에서 전개된 문화계몽운동·대중운동·신간회운동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른 부문별 민족운동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미 선행 연구에서 역사적 성격을 상당 부분 밝혔다. 그런 만큼 3·1운동 이후 부산지역 항일운동 중 이 분야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 등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7) 항일운동은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우는데 매우 유용한 분야 중 하나이다. 올바른 기억과 전승은 새로운 시민문화를 창출하는 소중한 정신적인 유산임이 분명하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사’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반추하는 ‘오늘’로서 의미를 지닌다.

## II. 문화계몽운동과 대중운동 확산

민족적인 함성과 더불어 생명을 건 저항에도 조국광복은 일제의 극악무도한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실망감은 독립운동계 전반에 팽배하는 분위기였다. 변화에 민감한 학생들은 스스로 반성과 아울러 이에 부응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새로운 이념인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등 유입으로 민족해방운동은 ‘전환기’를 맞이했다. 곧 3·1운동을 통

6) 김형목, 『여자야학의 활성화』, 『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5』, 2009, 260~264쪽.

7) 강대민, 『부산지역 항일운동사의 지평』, 『근대 부산의 민족운동』, 2008, 80~91쪽.

하여 활동가들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뿐만 아니라 민중의 실체를 새롭게 인식하였다.<sup>8)</sup>

한편 이른바 문화통치는 기만성을 내포하지만 문화계몽운동 활동영역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었다. 우후죽순처럼 조직된 사회단체나 청년단체 등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심세력이었다. 변화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각 단체나 활동가들은 ‘改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활동가들은 개인은 물론 가정·사회 개조를 위한 지름길로 근대교육 보급과 확산에 적극적이었다.<sup>9)</sup> 군과 면을 단위로 조직된 청년단체나 여성단체는 문맹퇴치를 주요 실천사항으로 결의하는 한편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의법여자청년회·부인전도대·면려여자청년회·여자수양회 등이나 여성계몽단체인 여자교육회·여자청년회 등은 사회적 문제로서 크게 부각시켰다.<sup>10)</sup> 교육열과 향학열 고조는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널리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교육문제 해결과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선전하려는 조선교육협회와 조선여자교육회는 조직되었다. 이는 근대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입학난이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한규설·이상재·류근 등 각지 유지 91명은 1920년 6월 조선교육협회를 조직했다.<sup>11)</sup>

8) 김형목, 「민중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5』, 2009, 258~259쪽.

9) 『동아일보』 1920. 4. 2~7일 논설 ‘世界改造의 劈頭를 當하여 朝鮮의 民族運動을 論하라’. 『동아일보』 1920. 7. 13. ‘智識階級과 社會改造, 正義悖德의 分’. 『동아일보』 1920. 11. 2~4. 논설 ‘爲先 너를 改造하라’. 『조선일보』 1920. 6. 8. ‘女子教育會에 對하여, 洪泰善’. 『조선일보』 1920. 6. 18. ‘時代의 改造와 精神의 解放’. 『조선일보』 1920. 6. 27~7. 1. 사실 ‘各 團體에 對하여 一次 忠告會’. 『매일신보』 1919. 12. 6~1920. 1. 12. ‘女子社會의 改革’. 『매일신보』 1920. 1. 17~21. ‘女子社會의 改革을 讀破하고’. 『매일신보』 1920. 4. 17. 잡보 ‘改造의 本堂’. 『매일신보』 1922. 6. 6. 사실 ‘婦人改造問題’.

10) 김형목, 앞의 책, 2009, 260~264쪽.

11) 김형목, 「조선교육협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IV)』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382~384쪽.

이들은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략)… 挽回 吾人の 改造라 改善이라 하는 吶聲이 各方面에서 喧聒함은 實도 可喜할 現狀이라. 此에 基因함인지 銀行이나 會社가 簇出하여 우리 社會의 貧弱한 經濟界를 潤滑케함도 無論 急지 아닌 것은 아니로대. 그러나 우리 社會의 根本的 改造를 企圖코자할진대 如干 形式의 外部的 制度의 十時的 改造로는 到底히 能히 할 바 아니 오. 문저 一般國民의 文化程度를 向上케 하며 多數의 人材를 養成함 이 無하면 此는 木에 緣하여 魚를 求함과 異할 것이 無하도다.

이제 世界의 大戰亂의 結果가 新文化의 大運動을 惹起하게 됨은 特히 著名한 事實인즉 今日 우리 社會를 沈淪 中에서 挽回할 唯一 의 方策은 다만 이 時代에 適應한 教育을 獎勵振興함에 專在하도다. 噫라 今日 朝鮮의 教育問題는 이것이 決코 閑人의 閑談材料가 아니라 우리 民族의 將來 消長에 關한 岐點이며 死活에 關한 問題라. 現下 朝鮮內에 散在한 零星한 教育機關 中에서 純然한 우리 朝鮮人의 財力과 努力으로 經營하는 것이 幾個人 有하노. 根本의 問題를 等閑에 附하고 民族의 復活이니 社會의 改善이니 아모리 絶叫하며 아무리 期待할지라도 畢竟 到來할 機가 업슬 것이다. …(하략)…<sup>12)</sup>

사회개조를 위해 우선 개인개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근본적인 개조는 근대교육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sup>13)</sup> 교육문제는 조선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조선교육협회는 이러한 취지를 실천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는 문화운동의 이론적인 기반으로 사회개조

12) 『동아일보』 1920. 6. 23. ‘朝鮮教育會 發起’.

13) 1920년대 문화운동의 논리인 사회개조는 ‘신문화 건설’이었다(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의 우파의 실력양성론-』, 역사비평사, 1992, 177~185쪽). 이는 민족적 ‘허무주의’나 ‘패배주의’에 기초한 이광수의 민족성개조론과 지향점이 다른 논리적인 구조였다(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개벽사, 1922. 『동아일보』 1924. 1.2~6. 사설 ‘民族的 經綸’).

론·사회진화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sup>14)</sup> 그런 만큼 사회를 개조하여 민족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운동은 기본적으로 근대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논지였다. 그럼에도 한국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은 소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개탄하였다. 극복 방안은 한국인 스스로에 의한 야학이나 강습소 등 사설 교육기관 설립을 강조했다.

이 단체의 교육사업은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에 관한 잡지 발행, 교육 공로자 표창, 도서관 경영, 기타 교육 보급상 필요한 사항의 실행 등이었다.<sup>15)</sup> 이를 후원하는 교육장려단도 조직되는 등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증폭시켰다. 지역 단위로 조직된 교육회의 순회강연회·영사회 등 계몽활동과 당면한 교육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은 구체적인 실천문제로 귀결되었다.

1920년 4월 김미리사(차미리사로 개명-필자주)와 서울 거주 전문직 여성종사자 등은 조선여자교육협회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종교예배당 내에 여자야학회를 설립한 후 가정부인을 대상으로 조선어·산술·습자·일어·도화 등을 교수했다. 토요일에는 음악회와 통속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여자교육 확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sup>16)</sup> 조직 후 이듬해에는 순회강연단을 조직하여 농한기·방학을 이용한 순회강연으로 여자교육의 절박성과 시대 변화에 부응할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sup>17)</sup> 이리하여 군을 단위로 여자교육회가 결성되었다. 동시에 여자교

14) 김형목, 『서울의 민족교육운동』, 『서울항일독립운동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659~660쪽.

15) 『동아일보』 1920. 6. 30.~7. 1. 논설 ‘朝鮮教育會에 對하여, 教育獎勵의 中心的 機關’. 柳東漢, 『朝鮮教育協會는 무엇을 하는가』, 『별건곤』, 개벽사, 1931.11, 21쪽.

16) 『동아일보』 1920. 4. 16. ‘婦人을 爲하여 新試驗, 녀자교육회 주최 부인통속강연회’ 과 ‘女子의 努力으로써 教育會를 設立, 가정부인을 위하여 김미리사녀사의 말’. 『동아일보』 1920. 4. 23. ‘女子夜學會, 녀자교육회 주최로 종교예배당 안에서’. 『매일신보』 1920. 4. 16. ‘식女子의 樂園 女子教育會, 땃칠전에 이를 조직 잡지도 발행’. 『매일신보』 1920. 6. 15. ‘女子界 新現狀’.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5, 1970, 226쪽.



육을 위한 강습소나 여자야학이 설립·운영될 수 있었다.<sup>18)</sup> 바야흐로 여자야학은 여성교육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았다. 30~40대 가정부인의 야학에서 고조된 항학열은 사회적 모범으로 널리 칭송되는 분위기였다.

이는 실력양성론에 근거한 교육열을 ‘자강운동기’보다 훨씬 배가시켰다. 신학기를 맞아 중등교육기관은 물론 초등교육기관조차도 만성적인 입학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된 서울조차도 초등교육기관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탈락자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되었다. 각지 공립보통학교는 지원자 학령아동의 겨우 30% 정도를 수용하는 형편이었다. 1922년 4월 발기한 입학난구제기성회와 이후 조직된 입학난구제방법연구회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sup>19)</sup> 공립보통학교 입학시험이나 편입시험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인 강습소는 우후죽순처럼 운영될 정도로 ‘호경기’를 누렸다. 이른바 입시전쟁은 이러한 상황에서 야기되었고, 식민교육정책 강화와 더불어 확대·재생산되는 계기였다. 이처럼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문화계몽운동 대두는 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동아일보』나 『개벽』 등은 이를 주창하는 선봉에 나섰다.<sup>20)</sup> 학생들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적일 수는 없었다.

1920년 4월 중등교육기관 학생 200여 명은 중앙예비당에서 모임을 갖고 조선학생친목회 발기총회를 개최했다.<sup>21)</sup> 목적은 지육·체육·덕

17) 박용옥, 「조선여자교육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IV)』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548~549쪽.

18) 정세화, 「한국근대 여성교육」, 『한국여성사 개화기-1945』, 이대출판부, 1972, 339~341쪽. 김형목, 『배움의 목마름을 풀어준 야학운동』, 서해문집, 2018, 189~190쪽.

19) 김형목, 위의 책, 2018, 183~198쪽.

20)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전국 규모의 강연회 실시」, 『천도교청년회80년사』, 2000, 107~110쪽.

21) 『동아일보』 1920. 4. 18. ‘조선학생친목회, 중앙예비당에서 금일 발기총회를 해’. 김호일, 「조선학생친목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IV)』 6, 독립기념관 한

육 발달을 도모하는 동시에 분산된 사상을 통제·선도하는데 두었다. 5월에는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학생대회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각계각층은 이들에게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지방색으로 분산된 사회단체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학생층 대동단결을 외쳤다. 실력양성운동 일환으로 순회강연회·토론회·체육대회·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정서 함양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sup>22)</sup> 조선학생대회 하기순회강연단 성과는 지대하였다. 방정환은 소감을 “참 통쾌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학생들 스스로도 사회적인 책무로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sup>23)</sup>

일제는 계몽활동마저 탄압하는 등 분열과 회유책을 병행하는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였다. 동경유학생학우회의 하기강연단은 서울 강연회로 해산당했다. 일제의 탄압에 비례하여 학생들은 더욱 단결력을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섰다. 지방색 타파, 민족의식 고취, 물산장려운동 참여, 새로운 지식 보급 등 각 방면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sup>24)</sup> 이는 조선학생회 조직으로 귀결되었다. 강령은 “조선 학생의 단결을 도모하고 당국의 학생문제 해결을 기함. 학생 상호간의 선도와 친목을 도모함”이었다. 이는 전문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사상이 팽배하는 가운데 항일 전선에도 사회주의 세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기존 항일단체나 사상계는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혼동된 상황이었다. 극복 방안은 조선학

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664쪽.

- 22) 『동아일보』 1920. 5. 8. ‘조선학생대회 창립총회’. 『동아일보』 1920. 5. 10. ‘조선학생대회 창립총회 성황, 엄중한 경계중에 무사히 경과했다’. 『동아일보』 1920. 9. 30. ‘학생강연단의 비상한 노력’. 일기자, 『사회일지』, 『개벽』 25, 1922.7.
- 23) 『동아일보』 1920. 7. 14. ‘재동경유학생학우회 주취 순회강연단 환영발기대회 평양에서’.
- 24) 『시대일보』 1924. 9. 29. ‘조선학생총연합회 취지문’. 『시대일보』 1924. 12. 3. ‘조선학생총연합회 발기총회’. 김호일, 『한국근대학생운동사』, 선인, 2005, 117~128쪽·164~165쪽.

생총연합회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 결성으로 이어졌다.<sup>25)</sup> 분열과 갈등은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증폭되는 분위기였다.

비밀결사에 의해 축적된 학생운동은 1920년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주요 쟁점은 식민지 노예교육에 반대하며 조선인 본위교육에 대한 요구였다. 즉 일본인 교사 배척, 무능한 교사 배척, 교육시설 개선, 조선어에 의한 교육 시행, 학생자치권 보장 등이었다. “우리 역사를 가르쳐 달라. 차별교육을 철폐하라!”는 주요한 구호 중 하나였다.<sup>26)</sup> 학생들은 계몽운동 확산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를 도모하였다. 이들은 직접 입학난에 따른 학령아동 구제나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 강습소 운영에 앞장서거나 명예교사로서 자원을 마다하지 않았다.<sup>27)</sup>

더불어 독서회 등 비밀결사 조직은 학생층 요구를 대변하기도 했다.<sup>28)</sup> 상호간 친목도모는 물론 단체적 훈련을 통한 인격수양과 문화계몽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1926년 6·10만세운동을 계기로 피압박민족 해방과 무산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노선으로 발전하고 있었다.<sup>29)</sup> 당시 학생운동 주류는 식민지 노예교육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이었다. 학교시설 개선과 같은 단순한 교내문제에 매몰되지 않았다. 식민지 차별교육 철폐는 물론 ‘조선인 본위교육’을 요구하는 등 식민지 교육제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걸었다.<sup>30)</sup>

25) 『시대일보』 1926. 4. 29.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정총’. 김대상·정세현, 『한국학생민족운동사 3』, 『사상계』 6월호, 1968.

26) 김호일, 앞의 책, 2005, 177~180쪽.

27) 박성의, 『일제하의 언어. 문자정책』, 『일제하의 문화침탈사』, 정음사, 1970, 291~293쪽. 김형목, 『일제강점기 초기 개량서당의 기능과 성격』, 『사학연구』 78, 2005, 245~247쪽.

28) 『중외일보』 1930. 9. 29. ‘감옥연장으로 간수부처 입원, 광주학생독서회 사건’. 『중외일보』 1930. 9. 30. ‘독서회사건의 광주 70학생 공판’.

29) 홍석률, 『일제하 청년학생운동』, 『한국사』 15, 한길사, 1994.

30) 장규식, 『1920년대 학생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9』,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6쪽.

투쟁양상도 더욱 치열해졌다. 동맹휴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투쟁본부도 설치되었다. 지역 내 학교들과 연쇄적인 동맹휴학을 전개하거나 동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서회를 비롯한 비밀단체가 속속 출현하기에 이르렀다.<sup>31)</sup> 이는 종래 중앙 본위의 합법단체를 대신하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주체로서 떠올랐다.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항일학생운동은 정점에 도달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항일학생운동의 결정판이라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sup>32)</sup>

부산지역 학생운동도 만세운동의 경험을 통하여 현실인식은 훨씬 심화되었다. 일본인 교사의 무례한 행동이나 민족적인 차별에 동맹휴학으로 맞섰다. 동래고보 하야시(林晉吉)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무례한 언사를 다반사로 서슴지 않았다.<sup>33)</sup> 이에 분개한 학생들은 3·4학년울 중심으로 동맹휴학에 돌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탐지한 일본인 교장은 “학생 여러분은 우리 교사들의 얼굴을 보아서 참아달라”고 설득하여 겨우 진정되었다. 1925년에는 새로운 교장으로 오타 노부유키(大田信之) 부임에 전교생은 분개하였다. 이들은 일본인 교장 배척과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를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sup>34)</sup>

5학년 박영출을 중심으로 김석암·최지택·김익수·박문길 등은 동맹휴학에 돌입함과 동시에 각 학년마다 간부를 정하여 학생들 등교를 막았다. 이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동맹휴학에 동참할 것을 설득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맹휴가 확대되자 학부모를 동원하는 회유책을

31) 장석홍,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조직과 6·10만세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참조.

32) 한규무, 「성진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2, 2004. 김성민, 「1920년대 후반 광주지역 학생운동의 조직과 발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2006.

33) 동래고등학교동창회, 『동래고등학교80년사』, 1978, 166~169쪽.

34) 『동아일보』 1925. 7. 7. ‘東萊高普生盟休 선생배척 퇴학생복교요구로 사백여 명이 작일부터 휴업해’.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완강한 학생들 반발에 학교 당국은 경찰을 동원하여 주동자들을 구속했다. 참여 학생들 대부분은 퇴학이나 무기정학 등 징계에 처했다. 즉 1학년 81명 중 80명, 2학년 75명 중 65명, 3학년 70명 중 47명, 4학년 40명 중 25명, 5학년 25명 17명이나 정학처분을 받았다.<sup>35)</sup> 전교생 중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징계를 받은 초유의 사태였다.

한편 학부형들은 7월 10일 동아일보사 동래지국에서 모임을 갖고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학교 측과 경남도 학무국 당국과 협의하여 학생들 등교를 결정하였다. 당시 학부형들에게 보낸 통지문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도가 출석치 못할 시는 그 부형이 생도의 입장을 유래하고 부형이 내임키 불가능할 시는 해당 친족 중 대리인으로 부형의 입장을 휴대하고 내참하고 부형 및 생도가 공히 불참할 경우에는 그 불참의 이유 및 증명될 만한 서면을 송부할 것. ② 전항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할 시는 생도의 당한 처분은 절대로 해제키 불가능할 줄로 사유함. ③ 등교 내용은 재부산 동래의 생도로부터 귀 자제에게 역시 상세한 통지가 갈 것임. ④ 이상의 상세한 사항은 면회 당시 진술함 등이었다.<sup>36)</sup> 학부형들은 동래기영회관에 모여 학생 220여 명을 인솔하여 등교했다. 교장은 등교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함으로 일단락되었다.<sup>37)</sup> 이는 오히려 후배들에게 모교에 대한 애교심 심화와 더불어 동래고보 학생운동을 계승하는 정신적인 지주였다.

이듬해 2월에도 당직 사감인 마쓰다(松田)의 폭언에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간식 요청에 “조선 민족은 걸인 근성이 많다.”며 면박을 주었다. 소식을 접한 박영출은 맹휴를 단행하여 주동자로

35) 강대민, 『1920년대 학생운동』, 『부산지역 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101쪽. 김형목, 『한국인 본위교육을 외치다』, 『근대의 기억 학교에 가다』, 부산근대역사관, 2011, 222쪽.

36) 『동아일보』 1925. 7. 25. ‘학부형해결 강구’.

37) 『동아일보』 1925. 7. 27. ‘동래맹휴해결, 학부형의 주선으로’.

지목되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졸업 1개월을 앞두고 퇴학을 당했다.<sup>38)</sup> 5학년생을 제외한 학생들은 1927년 7월 1일 다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요구조건은 학생들을 기계처럼 대하지 말 것, 학생문제를 경찰에 의뢰하지 말 것 등이었다. 학교 당국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학부형회를 개최하는 한편 학생들 요구조건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sup>39)</sup> 주동 학생 4명에 대한 출학 처분으로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다. 다행히 학부형회에 모든 문제를 일임함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sup>40)</sup> 동맹휴학을 통한 식민지 노예교육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은 이후에 하나의 전통으로 정립될 정도로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1923년에는 부산상업학교 학생들도 동맹휴학을 단행했다. 직접적인 배경은 학교명을 ‘부산진상업학교’로 변경하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1-2학년생은 학교명 환원, 불성실한 교사 배척, 각반 상시 착용 반대 등을 요구하였다. 5일 동안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학교에서 수용할 것도 주장했다. 동창회와 학부모는 중재에 나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중등교육기관 학생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6·10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28년에는 식민교육제도 철폐와 악질 교원 배척을 슬로건으로 전교생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sup>41)</sup>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동맹휴학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sup>42)</sup> 동래고보생은 12월 20-21일 양일간 광주학생 무조건 석방, 가해자를 엄벌하라며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이듬해에는 1월 11일부터 1개월 동안 29년도 휴학자 전원 복교 등을 요구하는 맹휴를

38) 강대민, 앞의 책, 2003, 102쪽.

39) 『동아일보』 1927. 7. 9. ‘東萊高普 動搖, 오년만 제하고’.

40) 『동아일보』 1927. 7. 14. ‘주동자 4명 출학’. 『동아일보』 1927. 7. 14. ‘동래고보 맹휴 해결, 학부형에 일임하고 학생들 일제히 등교’.

41) 부산상업학교동창회, 『부상100년사』, 1995, 45·55쪽.

42) 김성민, 「시위운동의 전국 확산과 지역별 양상」,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참조.

진개하였다. 이는 동래청년동맹과 연계됨으로 이전보다 진전된 양상을 보여주었다.<sup>43)</sup>

분위기는 부산지역 중등학교에 파급되었다. 부산 제2상업학교 학생들은 부산여고보와 시내에 격문을 살포했다. 이 사건으로 퇴학 2명과 무기정학 80명이나 처분을 받았다. 부산여고보와 부산상업실천여학교에서도 ‘조선인 분위교육’을 내세우고 동맹휴학에 돌입했다.<sup>44)</sup> 반면 부산진공보교생들은 동맹휴학을 추진하던 중 미수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독서회 등 비밀결사체도 조직되는 등 학생운동은 민족 문제에 더욱 접근하였다. 부산상업학교 후조회와 동래고보 적기회는 대표적인 단체였다.<sup>45)</sup> 전자는 부산상업학교 독서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했다. 목적은 회원들의 민족정기를 함양시키고 항일투쟁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기관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식민지배를 비판했다.<sup>46)</sup>

후자는 기관지를 발행하는 등 사회주의 이념 전파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더욱 확장한 조직은 학생사회과학연구회였다. 주동자 김명돌 등은 1931년 9월 반제전위동맹과 적색스포츠팀을 조직하고 반전 운동에 나섰다.<sup>47)</sup> 1920년대 말 세계적인 대공황 여파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쟁 공포와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반전격문 1,300매를 주요 공장지대와 식민지배 관청에 배포하다가 체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

43) 『동아일보』 1929. 11. 14. ‘동래고보생 무죄에 왕복한 서신이 불온타고 검거해 반년 이상을 예심으로 끝든 사건’. 김형목, 앞의 책, 2011, 223쪽.

44) 부산상업학교동창회, 앞의 책, 1995, 108~111쪽.

45) 『동아일보』 1932. 5. 29. ‘동래고보생 적기회 조직, 이치우 권동수 김명돌 등 4명은 공판에 회부돼’.

46) 신춘식, 『부산제이상업학교독서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II)』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639~640쪽.

47) 『중외일보』 1932. 1. 25. ‘반제전위동맹 7명 근근 송국, 용의자 24명 중에서 17명은 석방’. 『동아일보』 1932. 9. 11. ‘동래 반제전위동맹 공판 적색 스포츠 등 사건’. 조선총독부경무국, 『반제전위동맹사건』, 『사상월보』 제2권 제6호, 1932.9.

의 만주출병에 반대하는 뼈라 등도 살포함으로 사회단체와 연계를 도모했다. 동시에 일본인 교사 배척을 요구하는 동맹휴학도 일상적인 학생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sup>48)</sup>

이처럼 동맹휴학이나 조선인 본위교육 요구는 궁극적으로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나아가 민족해방을 지향하고 있었다. 비록 동맹휴학 원인의 절대 다수는 교원 배척이나 학교설비 개선 요구 등은 외형상 항일적인 성격을 거의 볼 수 없다.<sup>49)</sup> 민족의 독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대교육의 효용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학생들은 식민지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실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집단행동을 통한 제국주의교육 철폐를 요구하였다.<sup>50)</sup>

1928년에는 코민테른 12월 테제에 의해 조선공산당이 해산되었다. 세계대공황 이후 계급노선이 본격화되면서 좌편향적 모험주의는 지속되던 상황이었다. 1930년 5·30폭동을 필두로 혁명적 노동조합·농민조합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좌우합작에 의한 민족통일전선인 신간회와 신간회 학생부도 1931년 해소되어 나갔다. 여기에는 세계 혁명운동의 정세가 고조되었다고 판단한 코민테른의 계급주의노선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렇지만 대공황의 여파로 이탈리아와 독일 등에서 파시즘이 부흥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분위기였다. 코민테른은 계급 대 계급전술을 포기하고 반파시즘 인민전선이라는 통일전선 노선으로 전환을 선언하였다.<sup>51)</sup>

48) 『동아일보』 1932. 11. 17. ‘동래고보생 적기회 조직’. 『동아일보』 1932. 9. 11. ‘동래 반제동맹사건 2년만 징역 판결’. 『동아일보』 1933. 11. 22. ‘맹휴 계속되면 폐교도 불사’. 『동아일보』 1933. 11. 27. ‘수모 11명 퇴학, 정학 해제 84명’.

49) 『동아일보』 1924. 2. 19. ‘생도를 구타하는 선생, 고창보통학교의 교원배척문제’. 『동아일보』 1925. 2. 16. ‘무자각 교원배척’.

50) 장규식, 앞의 책, 2009, 266~267쪽.

51) 조동걸, 『한국근대학생운동조직의 성격 변화』,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 연구』, 일조각, 1987, 263쪽.



한편 노동운동은 1921년 9월 부두노동자 총파업이라는 미증유 사태를 경험하였다. 이는 1920년대 전반기 가장 대규모 파업으로 이후 노동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여러 차례 임금인하에 노동자들은 부당함에 알리는 동시에 조속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노동자 5,0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자 경찰은 비상경계망을 펼치는 등 주동자와 노동야학 교사들을 파업선동죄와 출판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가혹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다. 일제는 이와 분위기를 차단하고자 초기부터 철저한 탄압으로 일관했다.<sup>52)</sup> 노동동맹회는 창립 이래 많은 노력과 상당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관헌의 엄중한 취체와 박해로 세간에 널리 그 사업과 존재를 알리지 못했다.<sup>53)</sup> 외부적 탄압과 아울러 내재적인 여러 장애요인 등도 상존하고 있었다. 오히려 후자는 노동운동 진전을 가로막는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반적인 의식 침체, 파벌과 지방열 등은 이곳 노동운동을 강하게 지배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1924년을 기점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부산에 기반을 둔 김중범은 노동동맹회 정기총회에서 사회주의자 등과 노동문제에 대한 감상담을 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운동기는 서울 등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노동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반증한다. 30여 개 청년단체는 1925년 말에 부산청년연맹 조직했다.<sup>54)</sup> 단체 강령은 ①우리는 조선민중의 해방을 기함, ②우리는 합리적 사회생활의 획득을 기함, ③우리는 민중이 승리를 득함에 필요한 교양을 꾀한다 등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청년단체로서 노동신우회, 인쇄직공청년회 등도 결성되었다.<sup>55)</sup> 같은 시기에 ‘계급적 해방을 목표로 대중운동의 보조를

52) 김경일, 앞의 책, 1992, 137쪽.

53) 일기자, 『신년벽두의 조선의 사회운동』, 『개벽』 44호, 1924.2.

54) 『시대일보』 1925. 12. 8. ‘8단체 부산청년 준비회’. 『시대일보』 1925. 12. 26. ‘부산부청년 발기준비회’.

촉진하기 위한 사상단체 제4동우회도 창립되었다. 수년간 조합 자체의 실력양성과 단결력 축성에 진력하던 인쇄직공조합에서 조직을 개편한 후 13개 요구조건을 내걸고 동맹파업에 돌입하였다. 요구조건은 ① 노동시간 9시간제 실행, ② 야업을 전부 폐지할 것, ③ 공휴일은 20일 이상 출근자에게 유효하게 하고, 지각·조퇴는 무관하게 할 것, ④ 신입견습생 일급은 60전을 최하로 할 것, ⑤ 50전 이하의 고용원에게는 60전까지, 그 이상의 고용원에게는 3할을 인상할 일, ⑥ 노무 중 부상자가 발생할 때에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와 급료를 지급할 일, ⑦ 해고시킬 때에는 해고 통지 후 1개월간 유예를 줄 것, ⑧ 해고시킬 때에는 수당금으로 만 1개년 근속자에게 1개월, 그 이상인 자에게는 2개월을 지급할 일 등이었다.<sup>56)</sup> 즉 임금인상 문제보다 본질적인 요구조건은 9시간노동제·해고수당제·최저임금제·조합활동 보장 등 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였다. 파업에 부산노우회·부산신문배달부조합·부산청년회 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청년단체·노동단체·사상단체에서 격문과 성원이 답지했다.<sup>57)</sup> 인쇄직공조합원은 부산에서 가장 우수한 분자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노동단체라는 평가를 받았다.<sup>58)</sup>

평가와 달리 1926년 1월까지 1개월에 걸친 장기적인 투쟁에도 노동자파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부산지역 노동운동은 극심한 탄압과 아울러 침체에 직면하였다. 단위노조로 철공조합과 부산노동회가 결

55) 『시대일보』 1925. 8. 19. ‘노동신우회, 목도에서 조직’. 『동아일보』 1925. 8. 20. ‘노동신우회, 목도에서 조직 준비’. 소현숙, 『부산노동신우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II)』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632쪽.

56) 『시대일보』 1925. 11. 21. ‘부산인쇄직공조합 요구조건을 제출, 13가지의 많은 조건을 들어, 고주축인 인쇄동업조합에다 요구 거절시는 단연 동맹’. 오미일, 『부산인쇄직공조합파업』,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II)』 4, 2004, 638-639쪽.

57) 『시대일보』 1925. 11. 30. ‘부산인공 동파에 해주에서 긴급 결의’. 『시대일보』 1925. 12. 8. ‘부인공파업에 전주인공도 성원, 동업조합에는 경고전보, 직공조합에는 격문 전보’.

58) 『동아일보』 1926. 1. 5.

성되었으나 활발한 활동은 거의 없었다.<sup>59)</sup> 1928년 4월에는 철공조합이 결성되었다. 회관 정면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대한 신축낙성식을 거행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의 대중적인 기반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sup>60)</sup>

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1927년 12월 말에 노동운동가들은 개량적 내부 단체의 변혁을 추구했다. 혁신총회에서 김근술·박시영 등 노동운동가들은 주도권을 잡아 집행위원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노우회 근본정신이 喪布에만 있지 않음으로 우리는 굳게 단결하여 참된 노동단체로 나아가자며 결의를 다졌다. 주요 사업은 부산노동자소비조합 설치, 일반노동자를 위한 노동숙박소 설치, 회보 발행, 빈민굴 조사와 구제품 제공 등으로 결정했다.<sup>61)</sup> 또한 노동자 교양을 위한 노동문제연구부를 조직하여 매월 3회씩 교양과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회원 상호간 단결을 도모하는 야유회도 실시하였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공동숙박소와 소비조합 축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산각사회단체연합회를 조직했다.<sup>62)</sup> 이는 메이데이 투쟁을 계획하거나 부산노동연맹 조직을 주도하는 가운데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부산지역 노동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1940년 5월까지 81회에 걸쳐 일어난 노동자파업은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sup>63)</sup>

59) 『시대일보』 1926. 8. 3. ‘부산노동회 거월 말일 창립’. 『중외일보』 1929. 5. 23. ‘부산 노련 창립준비, 8개 단체 참가’.

60) 『동아일보』 1926. 7. 13. ‘부산철공조합 원만히 창립’. 김경일, 앞의 책, 1992, 139쪽.

61) 『시대일보』 1924. 9. 29. ‘부산, 노우회 조직’. 『시대일보』 1926. 1. 10. ‘부산노우회 신년간친회’. 『동아일보』 1928. 1. 10. ‘극빈자를 조사하여 구제책을 강구, 기타 노동숙박소 회보 발행 등, 부산노우회 대활약’. 『동아일보』 1928. 1. 18. ‘부산노우회의 극빈자 구제활동, 2백여 원을 거두었다’.

62) 『동아일보』 1925. 6. 24. ‘무료숙박소와 도항동포 보호, 부산노우회의 활동’. 『중외일보』 1928. 1. 20. ‘부산노우회의 빈민 구제 노력, 일반칭찬 부분’. 『중외일보』 1928. 1. 27. ‘도정미를 얻어서 노동자들에게 분배, 부산노우회에서 노동자 무료위안회도 개최’.

63) 『시대일보』 1928. 4. 9. ‘철공조합회관 낙성, 성대히 擧式’. 김경일, 앞의 책, 1992, 557~563쪽.

1920년대 말부터 부산지역 노동자파업은 대부분 고무공장에서 일어났다. 고무공장 난립에 따라 생산과잉은 주요한 원이었다. 치열한 판매 경쟁으로 생고무 시세는 상당히 올랐으나 고무신 가격은 완만하거나 하락하는 추세였다. 열악한 조건은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인하를 반대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혁명적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던 활동가들은 여기에 참여와 연계에 주저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시용·하순철·박보홍·김차룡·김태영 등이었다.<sup>64)</sup>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인 노동운동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중 하나였다.<sup>65)</sup>

서울이나 평양에 비하여 파업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부산지역이 식민지배의 최전선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이곳은 일제의 감시나 탄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엄중했다. 부두노동자 파업 당시 탄압에 일제 경찰은 ‘토끼몰이식’으로 노동자를 협박하거나 검거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당시 수출입 물량의 절대다수는 이곳을 통하여 운반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가나 청년단체 등과 연계를 통하여 일제의 부당한 간섭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용기를 발휘하였다. 더욱이 노동자들 정서 함양과 상호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야학 운영이나 친목회 개최 등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 Ⅲ. 대중운동 결집체로서 신간회 부산지회

문화정치로 식민정책 변화는 ‘본질적’으로 민족분열이라는 기만성을 내포한다. 1920년대 중반까지 사회운동을 견인하는 중심세력은 청년단체였다. 청년단체 주도 세력은 대부분 이른바 ‘명망가’로서 지주나 자산

64) 『조선중앙일보』 1933. 10. 4. ‘부산적노사건 김시용씨 출옥, 24일 부산서’.

65) 오미일, 『부산고무공장파업』,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 단체편 II)』 4, 629-631쪽.

가 등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식민지배에 적극적인 저항보다 현상 유지에 안주하였다. 사회개조를 지향하는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문화계몽운동 확산은 이들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았다.

기미육영회와 부산예월회는 1919년 11월과 12월에 각각 조직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백산무역주식회사 안희제·윤병호, 구포은행 지배인과 경남은행장을 지낸 문상우, 동래은행 지배인 김병규 등이었다. 전자는 우수한 지역청년들에게 외국 유학을 보내는 등 인재 양성에 노력하였다. 당시 유학생으로 선발된 인물은 동래의 이병호·이제만·문시환, 안동 전진환을 비롯하여 김정만, 안호상, 이극로, 신성모 등이었다. 두 단체는 유학생 주선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기관 운영과 교육 개선을 청원하는 등 식민지 노예교육에 반대했다.<sup>66)</sup> 자본가를 위한 특수금융기관 설치도 모색함으로써 민족자본 육성에 노력하였다.

문화계몽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직된 청년단체는 1920년 1월에 부산청년회였다. 이 단체는 이전에 지역 단위로 조직된 청년회나 구락부를 연합하여 탄생할 수 있었다. 중심인물은 김준석·조동혁·김철수·전성호·강기흠 등이었다.<sup>67)</sup> 이듬해 7월에는 각 부서별 활동이 구체화되었다. 학예부는 회보 발행과 야학회 개최, 사회부는 노동단체 조직과 회원 확보 및 학생의복 개량 등을 맡았다. 청년회관이 완성되자 노동야학·영어야학·보습야학 등 개설과 부산진 앞바다에 한국인을 위한 해수욕장 개장도 준비했다.<sup>68)</sup>

동래에도 최초 청년단체 동래청년구락부가 1920년 1월에 조직되었

66) 『동아일보』 1921. 3. 16. ‘부산예월회 개최, 조선교육조사회에 제출코자 하는 희망안 연구 심리’. 『동아일보』 1921. 6.29. ‘부산예월회 임시총회 개최코 조선산업조사회에 관한 제문제 연구 심의’. 강대민, 앞의 책, 2008, 67쪽.

67) 오미일, 『부산청년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II)』 4, 644쪽.

68) 『동아일보』 1921. 3. 14. ‘부산청년회관 신축계획’. 『동아일보』 1921. 3. 22. ‘조선인 공회당 부산에 설립계획, 부산청년회 제씨의 발기로’. 『동아일보』 1921. 7. 14. ‘부산청년회의 계획인 부산진의 조선인 해수욕개장식 성황’.

다. 백광흠, 조희수, 이환, 윤필균 등 주요 회원은 주민들 숙원사업과 권익 신장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이 단체는 김해시민대회에 참가한 후 인근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일본인 출입이 빈번한 동래권 번 예기들의 풍기문란 단속에 나섰다.<sup>69)</sup> 주민들의 교육과 위생 관념을 고취시키고자 순회강연단을 관내로 파견하여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부산청년회의 활동은 지주와 상업자본을 중심으로 토착자본가 상층의 초기 문화운동이 전후 공황으로 부두노동자 총파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가들은 부산지역을 벗어남으로 침체기에 직면했다. 물론 1924년 이들이 다시 부산지역에서 활동함으로 부산 청년회는 다른 사회단체와 연대를 도모할 수 있었다. 부산청년부 지도부를 장악한 이들은 한국인 도항저지 철폐운동과 보천교 박멸운동 등을 전개하였다.<sup>70)</sup>

청년운동이 침체 속에서 새로운 항일운동 이념으로 사회주의가 급속하게 유입되었다. 초기 사상적인 논쟁을 거쳐 사회주의운동론은 대중투쟁과 연결되면서 노동운동과 연계되는 계기를 맞았다.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은 도단위 청년연맹체 결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다만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조직과 노동쟁의 확산은 대중적인 조직화로 귀결될 수 있었다. 김종범과 조동혁 등은 부산노동동맹회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sup>71)</sup> 부산노우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노동시장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조직되었다.

대립 분열로 치닫던 사회운동은 민족협동전선체로서 신간회가 조직되었다. 본부는 효율적인 항일운동 전개를 위한 지회 설립인가에 박차

69) 김승, 『한말 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 2000, 88-90쪽.

70) 강대민, 앞의 책, 2008, 70쪽.

71) 경상남도경찰부, 『고등경찰관계적요』, 1936, 97쪽.

를 가하였다. 부산지회는 1927년 7월 30일 설립되었다.<sup>72)</sup> 당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국태  
 서무부간사: 최천택, 김한규  
 재무부: 이강희(상임), 김영식  
 정치문화부: 김홍권, 심두섭  
 조사연구부: 노상건, 백용수  
 선전부: 오택, 김하현

주요 활동가들은 부산노우회를 민족운동 중심지로 건인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중운동 확산을 위하여 부산지회 간부들은 부산노우회에 가담했다. 황명석·우길룡·김칠성·이강희·김시엽 등으로 부산청년회나 발전적 해체로 1927년 12월에 조직된 부산청년동맹의 활동가들이었다.<sup>73)</sup> 노우회가 개최한 노동자위안연주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간회 취지를 선전한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더욱이 부산지회 간부 중 노동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은 양말직공조합의 김국태·황명석·김봉한·김시엽, 철공노동조합의 노상건·김칠성, 부산노동회와 부산노동연맹의 김한규·안상교·노상건·김칠성 등이 있었다.<sup>74)</sup>

부산지회는 신간회 동래지회 설립대회에 참석하려고 내려온 경성지회 특과위원 이관구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연제는 ‘신간운동

72) 『조선일보』 1927. 8. 2. ‘신간회 부산지회 긴장리에 설립, 화기에애한 속에 무사히 진행, 경관의 경계도 엄중’. 강재순, 『신간회 부산지회와 지역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1, 1996.

73) 『중외일보』 1928. 3. 8. ‘부산청맹 집행위원회’. 『중외일보』 1928. 4. 27. ‘부산청맹 정총, 13조항 결의’. 『중외일보』 1929. 4. 10. ‘부산청맹 정총, 압수 금지로 종막’.

74) 강재순, 『일제하 부산지역의 노동자 계급의 형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58~60쪽.

의 의의'로 청중들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75) 이듬해 11월에는 부산 지역 각 사회단체 대표자 14명을 연사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연사들은 5분 동안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제시함으로써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76) 같은 해 12월 정기총회에서 부산지회는 회장 체제를 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旱災 구제, 借家人 동맹 축성, 전국대회 및 도연합회 설치금지 대책, 언론·집회의 자유 획득 및 동맹 조직 축성, 독일노동자 자유획득 등도 결의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체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77)

이후 부산노우회는 부산지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곧 부산지회는 대중적 조직의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부산노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부산노우회가 개최한 노동자위안 연주회에 참석하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간회 취지서를 선전했다. 활동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부산 전차종업원 동맹파업이나 조선방직주식회사 총파업 당시 진상조사나 지원활동 등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제는 동맹파업단을 지도하며 자금을 조달한 구실로 김주엽과 이성출을 검거하는 등 탄압했다.78) 이처럼 신간회 부산지회는 노동단체와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민족협동전선을 전개하고 있었다. 1929년 2월 당시 임원진은 지회장에 최천택, 부회장에 임용길, 간사에 오택·김윤간·김철성·노상건·김한규·김하현·안상교·김수홍·최세철·김시엽, 대표위원에 김국태·최천택·노상건·김한규·김상범·임용길 등이었다.79)

75) 『조선일보』 1928. 4. 8. ‘부산지회 강연 성황’.

76) 『조선일보』 1929. 11. 20. ‘5분간 연설대회’.

77) 『조선일보』 1929. 12. 8. ‘신간 부산지회 정기대회’. 신용하, 『부산지회』, 『신판 신간회의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7, 126쪽.

78) 『중외일보』 1930. 1. 13. ‘조선방직 파업과 신간회 본부 결의, 진상을 조사보고하라, 부산지회에 지령’. 『조선일보』 1930. 1. 28. ‘부산 사회간부 등을 속속 검거’.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499~500쪽.



세계적인 대공황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제의 집요한 탄압책동은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구성원 사이에 민족해방운동론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분열되었다. 부산지회는 제5회 정기대회에서 김봉한이 처음으로 신간회 해소를 제기했다. 정기대회에서는 1931년 전국대회에서 ‘해소운동’을 맹렬히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sup>80)</sup> 집행위원장은 임용길, 집행위원장 후보는 김봉한, 집행위원은 강재언·이택국·황명석·이순경·김낙중, 감사위원은 박태홍 외 1명을 각각 선출했다. 1931년 3월 29일 임시대회를 개최한 부산지회는 ‘신간회해소’를 결의하는 한편 전국대회에 건의를 결정하였다.<sup>81)</sup> ‘신간회해소’는 1931년을 시점으로 지회마다 서로 다른 운동론을 제기함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말았다. 지회원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정세관과 함께 일제의 신간회 해소 공작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부산지회의 설립과 조직적인 기초는 1920년대에 조직된 청년단체와 노동단체였다. 활동가들은 대중적 조직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동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런 만큼 부산지회는 다른 지회에 비하여 노동운동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동하였다. 즉 활동가들은 노동단체에 중복적인 가담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노동단체의 운동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하여 나갔다. 이는 부산지역 노동운동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 스스로가 주체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 소부르조아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부산지회의 ‘신간회해소’를 제기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sup>82)</sup>

79) 이균영, 앞의 책, 1993, 592쪽.

80) 『조선일보』 1930. 12. 6. ‘부산신간대회에서 신간회해소를 제창’. 신용하, 『신판 신간회와 민족운동』, 지식사업사, 2017, 127쪽.

81) 『조선일보』 1931. 4. 2. ‘신간부산지회 해소키로 결정’.

82) 이균영, 앞의 책, 1993, 555~559쪽.

#### IV. 학생운동 총화로서 1940년 부산항일학생의거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조선어교육을 제외하는 등 일본어 상용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육군지원병 훈련소 설치에 조선 청년들을 일본황군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시행하여 조선인들을 광산, 군수공장, 전쟁터 등으로 내몰았다. 특히 1943년 4월 1일부터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로 수업연한 단축과 국민학교 교육의 의무화 등을 전제로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 공포는 학교명 개칭, 교육내용 변경, 노력동원 강화 등을 통해 교육현장을 병영기지로 만들었다.<sup>83)</sup>

부산·경남에서도 1940년 11월 21일 새벽부터 22일 오후까지 1박 2일로 김해군 일대에서 야외군사훈련인 경남중등학교 연합대연습이 실시되었다. 군인들 훈련에 버금가는 모의전투훈련이나 마찬가지로였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제2회 경남학도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 개최될 계획이었다. 『매일신보』의 경남중등학교 연합대연습 종료 보도내용은 중등학생들의 적극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sup>84)</sup>

경남중등학교 연합대연습 다음날인 11월 23일은 일본의 축제일인 신상제 공휴일이었다. 부산공설운동장에서는 일본 황기 2천6백년 봉축기념 “제2회 경남학도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가 열렸다. 9월 7일에는 부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전력증강 경기의 조선신궁 봉찬 체육대회 경남 예선이 있었다.

국방경기대회는 193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 실시되었다. ‘경기요강’은 일제 문부성·육군성·후생성에서 작성하였으며, 조선대회는 총독부 위생과에서 계획하여 학무과에서 시행하는 전시체제에 적절한

83) 김의환, 『부산근대교육사』, 태화출판사, 1967, 48쪽.

84) 『매일신보』 1940. 11. 24. ‘장하다 젊은이 의기-경남중등학교 연합대연습 처일’.

스포츠였다. 수류탄 던지기, 장애물 통과, 토랑운반 등 제일선 전장에서 하는 경기로 집단훈련을 철저히 평가하며, 전(全) 조선대회 우승단체는 일본 명치신공국민체육대회에 조선대표로 파견한다고 선전하였다.<sup>85)</sup> 중등학교의 종목별 출전팀이 지역예선대회를 거쳐 조선대표가 되었다.

이 체육대회는 일상적인 운동경기와 너무도 다른 ‘변태적인 무장운동경기’이자 ‘해괴한 국방경기’였다.<sup>86)</sup> 부산에서 개최된 제2회 경남중등학교 국방경기대회는 일본인 심판인 학교배속장교들의 편파적인 판정에 항의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울분과 의분으로 이수라장인 상황에서 폐회식이 거행되었다. 그럼에도 『매일신보』 기사는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경남중등학교 국방경기대회가 장엄하게 잘 거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시파쇼체제에서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원 2천6백년 봉축 경남중등학교 국방경기대회는 예정과 같이 23 일 오전 9시 반부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며 참가교 도내 18 남녀중등학교 생도가 정렬을 지어 장엄한 입장식이 있고, 곧 경기에 들어가 모교의 영예를 걸머진 각 학교 선수들이 열기를 전개하여 총후 학도들의 불타는 이기를 보여주었다.<sup>87)</sup>

부산항일학생의거는 경남중등학교 국방경기대회에 참가한 경남도내 18개 남녀중등학교 중 한국인 학생이 대다수인 동래중학과 한국인 학생들만 있던 부산2상업학교(현 개성중·고등학교의 전신)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일본인 학교배속장교들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부산중학에 우

85) 『매일신보』 1940. 9. 7. ‘청년체력을 국방에 전력증강경기대회’.

86) 박순홍, 『동래고등학교 19회, 망월회상록』, 문성출판사, 1990.

87) 『매일신보』 1940. 11. 25. ‘연합국방경기회-경남의 18개 남녀중학생 합동, 23일 부산에서 장엄’.

승을 안겨 주었다. 결국 우승을 놓친 한국인 학생들 불만은 폐회식을 기점으로 폭력사태로 이어졌다.<sup>88)</sup> 국방경기대회는 다음을 통하여 군사훈련임을 엿볼 수 있다.

<표 1>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 경기 종목<sup>89)</sup>

경기 종목	경기 내용
100미터	개인이 총을 가지고 달리기
400미터 릴레이	4명이 한 조가 되어 총을 바톤으로 하여 달리기
80미터 장애물	총을 들고 한 사람씩 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넓이뛰기	5명이 한 조가 되어 무장하여 넓이뛰기를 하는 것 총점수로써 우열을 가림. 이때 총구멍이 땅에 닿으면 무효임
높이뛰기	5명이 한 조로 무장한 상태에서 총만 가지지 않고 높이뛰기를 하되 대검이 빠지면 무효
턱걸이	5명이 한 조가 되어 철봉에 턱걸이 하는 것. 총은 가지지 않음
수류탄 던지기	5명이 한 조가 되어 수류탄을 던지기
토양(土壤) 운반	모래를 넣은 가마니를 짊어지고 달리기. 5명이 한 조가 되고 가마니 중량은 8관(30kg)
비상소급(소집)	바지만 입고 누워 있다가 총소리가 나면 빨리 일어나 달리면서 옷을 입고 각반을 차고 무장하여 달리기
담가(擔架) 운반	5명이 한 조가 1인은 환자가 되어 담가에 실리고 4명이 달리기
중량물 들기	6관(22.5kg)짜리 역기를 많이 들어 올리는 횟수로 평가
씨름	5명이 한 조로 구성
견인경주	큰 나무 널판 위에 모래 가마나 세 개를 싣고 5명이 한 조가 되어 끌어당기기
줄 당기기	20명이 한 조가 되어 줄 당기기
무장행군	20명이 무장하여 한 손에 긴 줄 하나를 잡고 2,000미터 달리기

88) 동래고등학교18회 졸업생일동, 『내대사건 회상록-군봉 별책특집호』, 1964. 4쪽.

89)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002. 212쪽.

<표 1>에서 수류탄 던지기는 멀리 던지는 것이 아니라 55m 지점에 정확히 던져야 득점을 주었다. 『동래고등학교 100년사』의 ‘부산공설운동장 학생의거’에는 당사자인 김인규 증언과 상반된 상황을 보여준다.

... (상략) ... 경기도 다 끝나가고 마지막에 20명의 행군경기가 남아 있었다. 이 경기는 20명이 줄을 잡고 2,000m 달리기 경기였는데 우리(동래중학)가 단연 1등으로 들어왔다. 이때 총 점수는 우리가 단연 1위였고 부산중학이 2, 3위 정도여야 했다. 그런데 우리가 1등이 되니 최후의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였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잡고 간 줄이 끊어졌던 것이다. ... (중략) ... 이것을 본 심판관들은 우리학교를 실격이라고 하고 2위로 따라 오던 부산중학은 각반이 풀어져 있었는데도 지적조차 하지 않고 1등이라고 선언하였다. ... (하략) ...<sup>90)</sup>

편파적인 경기 판정에 분노한 부산2상과 동래중학 상급학생들은 시위대를 이끌고 당일 야간에 영주정에 있던 노다이 대좌의 주택 습격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기물을 파손하는 등 민족차별에 대한 불만을 물리적으로 행사했다. 당시 상황은 부산2상 5학년 ‘이인회’의 학적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핵심은 노다이의 주택에 침입하여 기물들을 파괴하고 폭언을 퍼붓고, 또한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검사국에 기소되었다는 내용이다.

반면에 공설운동장에서는 농성이나 항의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동래중학 4학년인 ‘박순홍’의 증언도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출정 가족의 사택에 살고 있던 노다이<sup>91)</sup>는 중일전쟁에서 전사한 외아들 노다이 사토시 육군 보병 대위의 위패마저 파괴된 것을 보고 가해 학생들의 색출과 처벌에 깊이 관여하였다.

90)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부산공설운동장 학생의거’,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002.

91) 김신아, 『문화와 신학』-6. 노다이 대좌 사건 회고록, 『기독교사상』 2월호, 2006.

당일 밤부터 가해 학생들을 검거하기 시작한 일제 경찰과 헌병은 다음 날까지 200여 명의 학생들을 검거했다. 검거된 학생들은 남서·북서·수상 경찰서 등에 구금되어 취조를 받았다.<sup>92)</sup>

『매일신보』에 우에노(上野) 경남경찰부장이 발표한 담화문은 일제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상략)... 당일 거행한 국방경기는 이 지방으로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반의 인식이 부족한 것과 다른 경기 등과 달라 전력의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로서 단체적 훈련을 주안으로 하여 한 사람일지라도 반칙자가 있는 때는 점수를 감하는 등, 그 채점방법에 극히 복잡한 조건이 붙어 있기에 그 판정이 각 선수 응원하는 생도, 일반 관중에게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아 판정에 대한 의문이 직접 원인이 되며 이러한 불상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 (하략)...<sup>93)</sup>

한국인 학생들이 심판 판정에 불평한 이유는 경기규칙이 생소하며 복잡하고, 경기의 인식이 부족하여 다른 경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경기규칙마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고 한국인들이 여태껏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한 경기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불복은 일본인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는 남자의 수치로 여긴다고 하여 한국인이 무식하고 야만적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학생의 신분으로 비상시국에 본분을 망각한 것에 대한 훈계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제3회 결심공판 보도에서는 검사 구형이 징역형이었으나 제4회 선고공판에서는 검사 구형이 금고형으로 바뀌었다. “뚜렷한 주모자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라는<sup>94)</sup> 증언을 바탕으로 12명에게는 금고 8월형

92) 동래고등학교18회 졸업생일동, 앞의 책, 1964, 11쪽.

93) 『매일신보』 1940. 12. 28. ‘시국을 모르는 행동-경남경찰부장 담(談)’.

과 3명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되었다.<sup>95)</sup> 집행유예를 받은 김종배·김재한·이인희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일제 말기에는 국외 무장투쟁과 국내 비밀조직을 제외하면 당시 항일운동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대표적인 경향은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어렵게 학업을 닦고 있던 학생들의 비밀결사운동과 다른 하나는 국내 일반 노동자·농민들, 일본에 징용된 노무자들이 전개했던 조직적·비조직적 형태의 저항 등이었다.<sup>96)</sup>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제의 전시체제 재편은 1940년대 광복 직전의 국내 상황을 총동원체제로 몰아갔다. 일제는 한반도에서 징병제 실시·청년특별연성소·해군지원병제도 등을 실시하는 한편 철저한 통제 경제를 시행하였다.<sup>97)</sup>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학원 통제와 전시체제로 전환은 더욱 강화되었다. 194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은 결전교육의 실시였다. 이는 군국주의 파시즘 국가체제인 일제의 군사능력을 배양하는 수단이자 실천적인 원천이었다.<sup>98)</sup> ‘학교병영화’는 청년과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기본적인 인권마저 말살하는 지옥 같은 삶을 강요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43년 4월 1일 제4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여 수업연한 단축, 국민학교 교육의무화 등을 내걸었다. 이는 전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되었다. 1943년 10월 31일 총독부 학무국은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법」을 공포하여 학교명 개칭·교육내용 변경·노력동원을 강제하고 황민화 교육체제를 군사체제로 전환하였다.<sup>99)</sup> 마치

94) 김영조, 『좌담회 내대사건을 회상하면서-군봉 별책특집호』, 1964, 28쪽.

95) 정세현,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1975, 481쪽.

96) 변은진, 「일제말 전시파쇼체제하 학생민족운동의 전개와 민족주의적 성격」, 『국사관논총』 67, 1996, 200쪽.

97) 김형목, 앞의 책, 2018, 318쪽.

98) 김호일, 앞의 책, 2005, 342쪽.

99) 정세현, 앞의 책, 1975, 481쪽.

막으로 일제는 패전이 확실한 1945년 5월 21일 전시교육령을 공포해 일본에서는 당일부터 실시되었고, 한국에서는 7월 1일 전시교육령시행령이 부령 제15호로 공포·시행되었다. 이는 본토 결전에 대비한 식량증산·군수생산·방공방위·중요연구 등 전시에 필요한 인력 동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었다. 중국적인 목적은 교원과 학생들로 학도대를 조직해 지역마다 연합학도대를 조직이었다. 즉 학생의 군사 조직화와 예비군화는 파쇼체제가 요구하는 목적이었다.<sup>100)</sup>

1940년대 초반 이러한 상황은 일제 관헌의 일반적 관측이었다. 일제는 조선인 『사상운동의 일반적 경향』 가운데 청소년층의 동향에 주목했다. 즉 ① 불리한 전쟁상태 이용의 경향이 극히 농후하여 그 기도하는 바는 물력이 풍부한 적 미·영과 이의 비호를 기대하는 중국정부 측의 우위를 맹신하고 태평양전쟁에서 궁극적으로는 연합국 측이 승리하여 일본은 바야흐로 패전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며 이 기회야말로 조선민족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것, ② 일부에 있어서는 재미, 재중국, 임시정부 또는 만주에서 반만항일전선에蠢動하는 김일성 등을 동경하고 이들의 원조·지도 또는 연계를 꾀하는 것, ③ 戰局이 점차 심각해지자 마치 이에 즉응하는 것 같이 그 운동형태가 악랄해질 뿐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타나게 된 것은 종전과는 그 성격이 일변한 것임, ④ 이와 같은 경향을 청소년층이 독점하게 된 것은 단순히 혈기 왕성하고 모험을 즐기는 당연한 경향으로 보아 넘길 것이 아니며, 일면 이와 같은 경향이 일반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sup>101)</sup>

동래중학 학생들은 시일회나 순국당 등 비밀결사와 연계로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를 결의했다. 1944년 8월 한국독립당을 조직한 남명기·김병현·이관수 등 7명은 양중모 집에 모여 그동안 활동을 점검하는 동시

100) 강대민, 앞의 책, 2003, 212~213쪽.

101) 정세현, 앞의 책, 1975, 526~531쪽.



에 향후 계획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했다. 이들은 민심을 교란하는 동시에 일본군 탄약고 폭파와 열차가 통과할 때 구포다리를 폭파할 계획을 세웠다.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일본군에 입대하여 연합군에 투항하여 중국에서 만나 항일운동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불행하게도 순국당과 조선독립당의 비밀이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다.<sup>102)</sup> 1945년 4월 ‘영미격멸대회’ 참석한 부산제2상업학교 신사현과 서봉태는 ‘성전’이라며 학생들을 전쟁의 수렁텅이로 내모는 연사에 의분을 참을 수 없었다. 이들은 “민족적 양심이 있거든 연단에서 물러가라”고 성토했다. 6월에 결성된 무궁단도 발각되어 옥고를 치루었다.<sup>103)</sup>

전시총동원 체제의 강화 속에서 학생들은 정세 변화와 일제의 향후 추이에 대해 민감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가장 특징적인 인식은 중일전쟁 발발을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침략적인 ‘제국주의적’ 성격의 전쟁으로 보았다. 나아가 세계대전으로 발전해 미일이나 미소 전쟁으로 발전하리라는 전망은 학생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는 분위기였다.<sup>104)</sup> 이는 조국광복에 대한 학생층의 반제와 반전운동을 전개하는 원동력이었다.

## V. 맺음말

3.1운동은 민족해방운동사에서 ‘분수령’적인 의미를 지닌다. 의병운동·의열투쟁·학생운동·교육계몽운동은 여기에 합류되었다. 신분이나

102) 정세현, 앞의 책, 1975, 539쪽.

103) 김승학, 『한국독립사』, 애국동지원호회, 1956, 229쪽.

104) 김형목, 앞의 책, 2018, 320쪽.

계급을 초월하여 한민족은 조국광복을 향한 힘찬 진군에 동참하였다. 민중층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만세운동은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국제질서는 제국주의 이해 관계에 따라 재편되고 있었다. 활동가들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민족해방운동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민족해방운동 이념으로 사회주의 유입은 민중운동론에 입각한 대중투쟁 강조하는 분위기로 변화되었다. 사회개조론은 문화계몽운동을 추동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부문별 민족해방운동 진전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진전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다. 부산지역도 이러한 흐름에서 부응하여 다양한 항일운동론은 모색되는 한편 실천되어 나갔다.

일신여학교·부산상업학교·범어사 학림 등 학생층은 만세시위에서 전위대로서 역할을 자임했다. 이러한 역할은 1920년대 이후 해방 직전까지 잠시도 중단되지 않았다.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조선인 본위교육 시행, 민족적인 차별을 일삼는 일본인 교사 배척 등은 학생운동에서 단골로 등장한 요구사항이었다. 노동야학이나 노동운동과 연계는 학생운동과 대중운동을 접목하는 운동현장 중 하나였다. 1935년을 기점으로 학생운동은 변화에 부응하려는 운동론을 모색한다. 이는 반제·반전운동을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계기를 맞았다. 민족말살정책에 맞서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활동도 병행되었다. 소규모 학생조직에 의한 비밀결사 활동은 암울한 식민지시기를 밝히는 ‘희망봉’이었다. 군국 파쇼체제에 맞선 비밀결사·가두시위·학병거부 등으로 항일민족운동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다.

노동운동은 1920년대 초반 부두노동자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일제는 엄혹하게 탄압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노동단체나 노동조합 등과 유대를 차단하는 동시에 엄벌백계로 진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인체직공조합 파업이나 다른 파업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로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동운동가들은 외부 세계와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전혀 굴하지 않았다. 소비조합운동이나 야학운동 등은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현실인식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메이데이 기념식은 노동자들의 주체의식을 일깨우는 밑거름이었다.

협동전선운동 일환으로 출범한 신간회 부산지회의 기반은 이전에 조직된 노동단체와 청년단체가 중심이었다. 대중적 조직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은 노동운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문화계몽운동과 학생운동과도 일정한 연계를 가졌다. 노동운동 진전은 소부르조아 중심에서 벗어나 대중성을 확보할 수 근간이었다. 이는 대중투쟁이나 부문별 민족해방운동과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1940년대에 접어들어 학생운동을 제외한 표면적인 항일투쟁은 침체에 직면하고 말았다. 이는 부산지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전반적인 현상이었다.

## | 참고문헌 |

### 1. 저서

- 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경찰요사』, 조선인쇄주식회사, 1934.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5, 1970.
- 강대민, 『부산지역 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 \_\_\_\_\_, 『근대 부산의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비신서 111』, 창작과비평사, 1992.
- \_\_\_\_\_, 『노동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9』,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 김형목, 『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5』,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_\_\_\_\_, 『배움의 목마름을 풀어준 야학운동』, 서해문집, 2018.
- 김호일, 『한국근대학생운동사』, 선인, 2005.
- 박용옥, 『여성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1』,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박철하, 『청년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0』,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 신용하, 『신판 신간회의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7.
- 오미일, 『경제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6』,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이균영, 『신간회운동』, 역사비평사, 1992.
- 장규식, 『1920년대 학생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9』,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정세현,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1975.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 홍순권 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 2. 논저

- 김 승, 「1920년대 경남지역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청년연맹 결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2, 1996.
- \_\_\_\_\_, 「한말·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 2000.
- 김형목, 「부산지역 근대교육과 학교생활의 변화」, 『근대의 기억 학교에 가다』, 부산 근대역사관, 2011.
- 변은진, 「일제말 전시 파쇼체제하 학생민족운동의 전개와 민족주의적 성격」, 『국사 관논총』 67, 1996.
- 이귀원, 「1920년대 전반기 부산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전개와 노동계급의 형성」,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I (영남편), 역사문제연구소, 1993.
- 조동걸, 「한국근대 학생운동의 성격변화」, 『한국근대민족주의운동사연구』, 일조각, 1987.
- 홍석률, 「1940-45년 학생운동의 성격변화」, 『한국사론』 24, 1991.

| Abstract |

The Characters of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in  
Busan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Kim, Hyung-Mog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a watershed that announced a new departure in history of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Except the Minority of pro-Japanese group, the Korean nation joined the line of nation's independence. Despite active participation, The March First Movement could not achieve the final aim. After the World War I, an international order has been reorganized, and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was sought to meet the new change.

The mass struggle was stressed based on the theory of popular movement by inflow of Socialism. In Busan, the variety of theory of anti-Japanese movement were sought to meet these flows. A student movement was continued from the March First Movement to right after Korean liberation. The implement of Korean principal education and exclusion of Japanese teachers who segregated Koreans became major problems. The combination of experience developed into the central force starting from 1935 who took the lead in the anti-imperialist and anti-war movements. The variety of activities that awakened the national spirits were conducted opposing the policy to obliterate the Korean nation. The Busan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1940 and secret organization on a small scale were a 'Cape of Good Hope' which lightened the dark of colonial period.

In the early 1920s, the general strike of workers of Busanport faced into an unheard of situation. The strike of association of printing workers was in

same situation. The Labor agitator stood against their suppression through exchange and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The cooperative society movement and movement of night school was one of the factors intensifying the awareness of reality of workers. The ceremony of May Day was a foundation which awakened the worker's sens of sovereignty.

The Busan branch of Singanhoe was organized based on labor associations and youth organizations. The base of mass organization was realized in close relations with labor movement, and cultural enlightenment and student mov movements was in the same vein. Especially, the progress of labor movement was a base to secure the pupular appeal getting out of petit-bourgeois-centralism. It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mass struggles an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The Busan branch of Singanhoe had relation with these cognition, which raised the theory of dissolution of Singanhoe at first.

**Key words** : The March First Movement, Kimi-Scholarship Society, education fever, Korean principal education, Busan Nowoohoe, Busan branch of Singanhoe, Busan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1940, secret organization.